

종단소식

조계종

봉선사 신도회 현안논의

남양주 봉선사(주지 필운)는 23일 운하당 서 교구신도회 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도회칙수정안 의결을 비롯 각종 신도회 현안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범어사 금정불교대 졸업

부산 범어사(주지 성오)는 20일 오후 2시 보제루에서 금정불교대학 졸업식을 봉행한다. 이에 앞서 금정불교대학은 13일부터 14일까지 철야정진 및 수계식을 가졌다.

월정사 성보박물관 상량

경남 월정사(주지 현해)는 5일 대웅전에서 '진부유치원·불이문·성보박물관 보장각 상량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현해 월정사 주지, 원형 삼화사 주지를 비롯 김용욱 평창군수, 이강진 경창교육청 교육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대교종

대전교구 전통의식 강좌

대전교구종무원(종무원장 월해)은 10일 4개월 과정의 불교 전통의식 강좌를 개강했다. 강좌는 도량식, 상단에불, 각단에불, 행선축원 등의 초급반과 시련, 대령, 관육, 신중작법, 천수바라 등의 중급반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성주암 신도합창단 발표

과천 성주암(주지 종연)은 10일 관악구민회관에서 제2기 신도합창단발표회 및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종무원장 인곡스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신도합창단의 찬불가 발표와 다과회 순으로 진행됐다. 다과회에서는 지난 7월 화재로 전소된 대웅전 건립을 위한 모금도 이어졌다.

동방불교대 신행실수

동방불교대(학장 정태혁)는 1일부터 2일까지 성북동 태고

사에서 관리과정 신행실수를 실시했다. 이번 신행실수는 발우공양, 좌선 등의 프로그램으로 평소 배웠던 교과과정을 몸소 실천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진태종

충무원 군·경에 위문품

충무원(원장 윤덕)은 15, 16일 이틀간 충무원장 윤덕스님을 비롯한 종단간부 15명이 공군사관학교 등 15개 군부대와 도경찰청, 청운공사 등 도내 군부대 및 경찰서, 각급 단체를 방문해 이들을 격려하고 생활용품 등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삼광사 어린이불교학교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24일부터 26일까지 지관전에서 어린이 겨울불교학교를 연다. 모두 7백여명의 어린이불자가 참여하게 될 불교학교는 장기 자랑, 연하장 만들기, 교리공부, 제기차기 등의 전통민속놀이, 인형극 발표회 등으로 진행된다.

진각종

통리원 신행단체 간담회

통리원(원장 성초)은 22, 23일 이틀간 대구 진각회관에서 신행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송년법회를 겸해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각 단체의 내년도 계획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지며, 총금강회 중앙청년회, 진각문학회, 회담학회, 종립학교 등의 관계자가 참가한다.

일통선교종

충무원 법계 고시 실시

충무원(원장 무찰)은 10, 11일 이틀간 일통선원에서 종단스님 및 전법사, 교임을 대상으로 연수교육 및 법계고시를 실시했다. 모두 1백20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교육은 대승불교사상, 종무행정론 등에 대한 강연과 종단발전의 위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둘째날 오후에는 스님 및 전법사·교임을 대상으로 법계고시를 실시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종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기꺼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연꽃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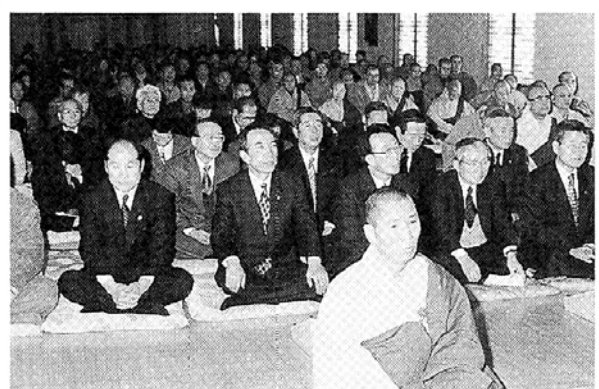
광명선원

불국토

복지 종사자 연수 활발

자질 함양·화합 등 성과 기대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수가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이들 연수회의 내용은 불교 전문인력으로서의 자질 함양은 물론 업무실수와 직간접 단합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은 13일 군포 배화복지관에서 산하 14개 시설 직원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복지시설의 종교적 자세, 효도와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관리, 청소년복지 대책, 노인보호의 실태와 문제점, 장애인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교구본사에서는 처음으로 직지사가 발벗고 나섰다. 직지사 본말사와 교구신도회는 5일 설법전에서 '나라경제살리기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해와성지순례 및 해외여행 금지 △수입재물의 불전공양 금을 △분수에 맞는 생활 △국산제품 애용 △일회성 화환보내기 지제 △저축의 생활화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존 등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청주 용화불교 창종 초대교령 범열스님

충북 청주소재 용화사를 총본산으로 하는 용화불교가 10일 종단창단 및 김범열 초대교령 취임식을 가졌다. 지난 10월 대한불교종단연합회에 가입한 용화불교는 경전간행사업과 함께 승려양성을 위한 불교대학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무정사 대웅전 낙성

육군 제9군단 충무정사(주지법사 이동배)는 12일 대웅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7개월만에 완공된 충무정사 법당은 50평규모로 2백여명을 동시에 수용, 법회를 봉행할 수 있다. 이날 낙성식에는 조계종 충무원

예절교육과 문서작성법 등 기초적인 소양교육에서부터 사회복지사들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법문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광명선원 원장 초격스님은 "불교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은 다른 곳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의 정서를 몸으로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로 연수회를 갖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참가자들의 반응도 좋다. 개금사회복지관 조수경대리는 "단순한 직업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부처님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며 "타성에 젖은 업무태도를 반성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김천 운불회 새해 1월 창립

회원 1백명...차량 염주달기·사찰홍보 추진

김천택시운전자회(가칭)가 내년 1월 창립을 목표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신동택시 김천택시 등 김천시의 4개 회사택시와 모범택시 및 개인택시 소속 불자들은 운전자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회원모집에 들어갔다. 운불회는 회원 1백여명을 목표로 회차제정과 임원선출을 연내에 끝내고 내년 1월15일경 창립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천운불회 결성은 95년말 직지사가 지역포교에 적극 나서면서 이뤄지고 있는 결실중의 하나이다. 이후 직지사를 중심으로 구미교사불자회 직지사교사불자회 구미택시운불회가 차례로 결성됐으며, 올11월에는 김천소년원 불교교과위원회가 발족했다.

태고종 금담스님 입적

태고종 총회 의장 금담스님이 9일 하오 8시 제주 보림사에서 열반했다. 세수 64세, 법랍 41세. 스님은 1957년 제주 관음사에서 성학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보경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한 후 63년 동국대 불교학과와 해인사

관음종 광진스님 입적

관음종 원로인 광진스님이 2일 충남 논산 봉황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79세, 법랍 70세. 스님은 1937년 용곡스님을 은사로 성원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47년 봉황사 주지를 시작으로 공주 마곡사, 연산 월은사, 대전 관음사 주지를 역임한 후 봉황사에서 주석했다. 영결식은 5일 봉황사에서 임수했다.

불교TV '석굴암' '출가' 등 4편 佛·대만 등에 수출

5개국에 6만불 계약 불교TV 영상물이 외국으로 보급된다. 불교TV는 4일부터 6일까지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7 MIP-ASIA'전에 참가해 총 6만달러(한화 1억원) 상당의 프로그램 수출계약을 맺었다. 불교TV와 수입계약을 맺은 방송사는 대만의 추지문화센터를 비롯 홍콩에 본부를 둔 EMPHASIS사, 프랑스의 M5, 인도네시아의 PT.Surya Citra TV, 싱가포르의 TV12 등 5개사다. 불교TV의 수출작은 '발우공양' '석굴암' '출가! 새로운 탄생' '예불' 등 4편. 이외에도 행사 기간동안 80여개가 넘는 방송사·바이어들이 프로그램 샘플을 요구하거나 리플릿을 통해 추후 협상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미국 MAX미디어 사는 선불교 관련 프로그램의 공동기획을 제안하기도. 총 2백여개의 방송사들이 참가

김지연 기자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본사주지모임 유성모임(12월 11일) 결의사항

경제난국에 대한 본사주지 모임의 견해

1. 오늘 우리사회가 직면한 경제난국의 원인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경제활동 동기부여 상실과 국민의 과소비에 기인한다고 보며, 대량실직에 의한 사회불안과 경제대국에 의한 경제 예속화를 우려한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교단실천운동>

경제난국 극복의 최선의 길은 승단생활정신인 무소유와 본소의 정신 실천에 있음을 다짐하며,

1. 종단과 교구본사는 최대한 재정긴축을 단행한다.
2. 불요불급한 불사를 자제한다.
3. 해외 성지순례를 자제한다.
4. 한 등 끄기와 실내온도 낮추기 운동을 전개한다.
5. 수입물품을 불전에 올리지 않는다.
6. 교단 종무원의 급여 10% 저축을 독려한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사회실천운동>

1. '경제살리기 한 통장 갖기 운동'을 전 종도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도록 캠페인운동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이를 위해, 사찰과 거리마다 플래카드 게시, 사찰별 지역별 가두 캠페인 전개, 지역사회 단체와 연대해 캠페인 운동을 전개한다.

이회창 후보 법정홍보를 '파계승 탈' 게재에 대한 본사주지모임의 견해

이회창 후보는 법정 홍보물에서 불교를 위해하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 이에 우리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모임'은 거짓말, 속임수, 경선불복의 파행적 인간의 상징이 승려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승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왜곡변질시키는 분명하고 명확한 해중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종단과 종도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불기 2541년 12월 11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본사주지모임